

## 2) 경남 서부지역 진출

광양현의 관아에서 동쪽으로 40리쯤 가면 섬거역이 나온다.<sup>1)</sup> 여기서 다시 약 20리만 가면 하동에 닿는다. 그 사이로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하동은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섬진강과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남쪽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곁에는 영호남의 경계를 휘어안은 지리산이 버티며 하동을 감싸안고 서 있다.

1894년 여름, 영호도회소는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 포교와 치안 확보, 폐정개혁의 수행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게 경상도지역까지 세력을 확대코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광양에 집결한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하동 상인의 도움을 얻어 하동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하동읍에 도소를 설치하여 곧바로 집강소의 폐정개혁활동에 들어갔다.<sup>2)</sup> 하지만 화개의 민포를 동원한 하동부사 이채연에게 이내 쫓기고 말았다.

한편, 일본군이 경북공을 전격적으로 점령하였다는 우울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농민군 수뇌부는 1894년 음력 8월 25일 남원에서 농민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척왜(斥倭)를 표방하며 제2차 봉기를 결정하였다. 정부와 지금까지 유지된 화해국면이 무너진 것이다. 전봉준과 김개남은 곡식이 수확되는 10월에 기포(起包)하기로 하고 각 도의 동학집주들에게 통문을 보냈다.<sup>3)</sup> 10월 하순을 전후하여 전북 삼례에는 10만여 명의 농민군이 모여들었다. 이 자리에는 백산봉기에 달려갔던 순천의 박낙양도 5,000여 명을 이끌고 참여하였다.<sup>4)</sup>

순천의 영호도회소는 음력 8월 말부터 새로운 활동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동학의 포교와 치안 유지, 폐정개혁 등에 치중하였던 것과 달리 본격적인 무력투쟁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1894년 음력 9월 1일(양 9. 28.) 영호도회소의 대접주 김인배와 수접주 유하덕은 1만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하동으로 쳐들어가기 위해 섬나루에 진을 쳤다.<sup>5)</sup> 광양에 집결한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서 하동의 관군을 비롯한 민포군과 대치하였는데, 관군의 엄중한 방어로 강을 선불리 건널 수 없었다. 이에 대접주 김인배는 다음과 같은 기발한 꾀를 내어 농민군의 용기를 북돋웠다.

인배는 부적 한 장을 그려 수탐의 가슴에 붙여 백 보 앞에다 놓고 자신의 심복 포졸에게 총을 쏘도록 하였다. 이에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닭은 반드시 총알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집장들께서는 저의 부적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연달아 세 번을 쏘았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다. 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적의 효험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부적을 옷에다 붙이고 앞을 다투어 강을 건넜다.( 헌역 오하기문, 234쪽)

김인배는 동요하려는 농민군들을 부적을 이용하여 결집시켜 섬진강을 손쉽게 건너게 한 것이다. 이들은 두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얇은 여울을 건너 하동부의 북쪽에 진을 쳤으며, 다른 한 부대는 광양의 망덕 나루터에서 배다리를 만들어 강을 건너 하동부의 남쪽에 진을 쳤다.

당시 하동부사 이채연은 이미 대구로 달아나버리고, 하동은 화개의 민포군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중이었다. 이에 하동의 민포군은 하동 관아의 뒷산인 안봉(鞍峰)에 진을 치고서 농민군

1) 첩지 4, 아세아문화사, 1983, 194쪽.

2) 김준형,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 慶尙史學 7·8합집, 1992, 84쪽.

3) 이광린·신용하, 자료로 본 한국문화사, 1984, 142쪽.

4) 오지영, 통학사, 1994, 482쪽.

5) 황현 저·김종익 역, 헌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233~236쪽.

을 기다렸다.<sup>6)</sup>

음력 9월 2일 초저녁, 농민군은 하동의 동학농민군 여장협이 이끄는 1,000여 명과 합세하여 민포군의 저항을 물리치고서 하동읍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음력 9월 3일, 마침내 농민군은 하동부에 도소를 설치하고서 읍권을 장악하였다. 곧이어 이들은 하동부사 이채연의 집과 민포군과 관련된 민가 10여 채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지난 7월 민포군에 쫓겨난 하동의 상인을 비롯한 일부의 농민군은 민포군의 거점인 화개로 내달아 500여 채의 민포군의 집에 불을 질렀다. 하동지역을 장악한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이곳에 5일 정도 머물며 군기를 정돈한 후 일부는 광양과 순천으로 되돌아갔고, 나머지는 김인배의 통솔하에 진주를 향해 진격하였다. 이무렵 진주는 동학교인을 중심으로 폐정개혁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즉, 진주의 동학교인들은 읍폐를 교정하기 위해 음력 9월 14일 읍내에 모인 다음, 장시에 장막을 설치하고서 인가의 훼손(毀燒)과 동헌의 무단 출입, 죄수 석방 등을 주도하였다. 음력 9월 중순경에는 진주 인근의 남해·사천·고성·곤양 등지에서도 영호도회소의 농민군들과 현지의 동학교인들이 협력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sup>7)</sup>

음력 9월 15일 광양과 순천의 농민군 수천 명은 깃발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곤양을 거쳐 진주로 향하였다.<sup>8)</sup> 이들은 진주 접경의 완사역(完沙驛)에서 하동의 농민군과 합세하였다. 음력 9월 17일, 이들은 진주에 무혈 입성하였으며, 다음날 영호대접주 김인배는 1,000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뒤따라 들어왔다. 당시의 상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음력) 9월 17일 동도 수천 명이 하동에서 본주(진주: 필자)로 들어오자, 병사와 목사는 모두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방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일렀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그 기세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와 각 관청을 점령하여 (도)소를 설치하였다. ... 18일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1,000여 명을 이끌고 이청(吏廳)으로 들어왔다. 징과 북소리 그리고 포성이 뇌성과 같았으며, 총과 창검의 날카로움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군진의 앞에 커다란 붉은 기를 세웠는데, '보국안민' 네 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畵문서』2, 407쪽)

음력 9월 17~18일 사이에 영호도회소를 비롯한 농민군들은 진주관아를 점령하였다. 진주의 목사와 병사는 김인배를 정점으로 하는 수천 명의 농민군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진주병사 민준호(閔俊鎬)는 농민군을 성 안으로 안내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할 정도였다.<sup>9)</sup> 당시 진주지역의 분위기가 농민군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주에 집결한 농민군들은 음력 9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그 후 이들은 경남 서부지역의 군현을 돌며 군량을 비롯한 군수품을 확보하고 읍권을 장악해갔다. 나아가 이들은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부산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sup>10)</sup> 농민군의 세력이 진주를 비롯한 경상우도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대되자, 조선의 개화정권과 일본은 각각 대책을 강구하였다. 조선에서는 대구판관 지식영(池錫永)을 토포사(討捕使)로 임명하여 진주와 하동 등지에 파견하였다.

일본에서도 10월 중순경에 이미 헌병과 순사를 파견하여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는 중이었다.<sup>11)</sup> 10월 23일, 일본 부산영사관에서는 병참부와 군용전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

6) 여재규, 『하동군사』, 1978, 249쪽.

7) 김준형, 앞의 논문, 91~93쪽.

8) 서울대 규장각, 『畵文書』2, 1987, 406쪽.

9) 이이화, 『탈골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118쪽.

10) 국사편찬위원회, 『추한일본공사관기록』3, 1991, 358쪽.

3개 소대 150명을 비롯한 군수요원 약 200명을 파견하였다.<sup>12)</sup> 이들은 10월 27일부터 하동을 중심으로 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일본군은 11월 5일에 지식영이 이끄는 관군과 합류하여 12월 초순까지 농민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전세는 농민군에게 점차 불리하게 진행되었다.<sup>13)</sup> 이를테면, 11월 6일에 농민군 지도자 임석준(林石俊)의 효수를 시작으로 농민군의 희생이 줄을 이었다. 8일 새벽에는 하동의 안심동(安心洞) 뒷산인 금오산(金鰲山)에 집결한 수백 명의 농민군이 기습을 받아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10일과 11일 사이에는 경남 서부지역의 마지막 대회전이 수곡면(水谷面)의 고승산성(高僧山城)에서 전개되었다. 당시 농민군 수천 명은 일본군과 관군을 맞아 싸우다 최소한 186명이 전사하고 2명이 피체되었다. 또한 화약 30관, 조선돈 6관 790문, 우마 19두, 쌀 5두, 총 136정, 칼 18자루, 나팔 3, 깃발 3, 화살 2다발, 창 54자루를 빼앗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sup>14)</sup> 전북 익산 출신의 삼남도성찰(三南都省察) 김상규(金商奎) 등이 체포되어 효수된 것도 바로 이무렵이었다. 이후 단성·산청·함양·거창·안의 등 경남 서부지역에서 활동 중인 농민군들도 대부분 하동과 광양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경남 삼가(三嘉)에서 퇴각한 영호대접주 김인배는 순천으로 돌아와 전열을 정비한 다음, 재차 경남 서부지역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웠다.<sup>15)</sup> 11월 20일 수천 명의 농민군이 하동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한 부대는 섬거역에 진을 치고 다른 한 부대는 섬진강을 향해 나아갔다.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신(지석영 : 필자)은 본대를 지휘하여 망덕 바깥바다를 건너 귀로를 차단하고 일본군 수십 명에게 부의 공관을 향해 바로 쳐들어가게 하였다. 적 중에 기를 가지고 있던 자가 먼저 꺼꾸러졌다. 적이 그것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지만 총에 맞고 강에 빠져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 이때 마침 날이 저물고 큰비가 내렸다. 적은 무기를 버리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인배는 산 속에서 움푹 파인 곳에 엎드려 소나무 가지를 잘라 얼굴을 가리고 인정(人定)까지 기다렸다가 비를 맞으며 맨발로 달아났다.( 흰역 오하기문, 269~270쪽)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전술의 부재와 무기의 열세로 말미암아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때 섬진강을 건너다 빠져 죽은 농민군이 무려 3,000여 명이었다고 전한다. 결국, 김인배는 남은 농민군을 수습하여 수접주 유하덕과 같이 순천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부산까지 진격하여 일본세력을 구축하려던 영호도회소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11)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1991, 129쪽.

12) 김준형, 앞의 논문, 95쪽.

13) 서울대 규장각, 『호문서』2, 1987, 417~419쪽.

14)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1991, 204~205쪽.

15) 황현 저·김중익 역, 『흰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269쪽.